

창사 61주년에 부쳐

광주일보가 창사 61주년, 회갑을 맞았다. 1952년 광주일보보는 ‘불편부당의 정론을 편다. 문화창달의 선봉에 선다. 지역개발의 기수가 된다.’는 3대 사시(社是)를 밝히며 세상에 태어났다. 호남 대표지로 언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민과 동고동락을 함께하겠다는 다짐이었다.

광주일보가 회갑을 맞이까지의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대한민국과 호남이 헤쳐온 지난 61년 세월이 그만큼 힘들고, 험난했던 탓이다. 그럼에도, 숭한 도전과 역경을 딛고 호남 대표 언론으로서 위상을 곳곳이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지역민과 애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의 덕분이었다.

광주일보는 이 역사적인 날을 맞아 지역 대표로서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많기도 하지만 지금이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100년 후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분수령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국가 안위도 여전히 걱정스럽다. 반

세기 만에 이뤄진 남북 대화의 통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막혀졌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암울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김정은 체제 강화를 위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폐쇄 등 북한과의 잇단 강경책으로 한반도는 냉전시대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삶도 나아지지는커녕 갈수록 팍팍하기만 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어렵사리 넘기는가 했더니

제성 등을 이유로 역점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이다.

이미 추진 중인 혁신도시도 변질을 거듭하고 있고, 지방중추도시 ‘10+ a’조성을 들고 나왔지만 제대로 추진될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지역균형발전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호남 소외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인सान 하더라도 이명박 정권보다 더한 홀대를 당하고 있다. 정치·

화중심도시, 광주·전남 혁신도시, J프로젝트 등 광주·전남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추진 중이지만 지역민들의 역량 결집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처지다. 호남이 그야말로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눈앞에 닥친 파도가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호남인과 우리 민족은 충분히 그럴만한 지력이 있다.

지역민 도약 위한 디딤돌 되겠다

기름값·곡물류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가의 급등으로 물가가 치솟으며, 서민가계를 옥죄고 있다. 게다가 대선기간 내내 국민대통합과 대량경을 외치던 박근혜 정부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불통의 정치, 편중인사로 국민들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 사정은 더욱 절박하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펼쳐온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 새 정부 들어서도 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각종 대형 국책사업들은 경

경제의 중심에서 완전히 비켜가면서 지역민은 낙후를 속명처럼 여겨야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다. 여기에도 호남이 ‘뒷발’이라면서 대선 패배 후 4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집안싸움’ 뿐이다. 민주당 내 친노·주류와 비주류 간의 무한 대치는 5·4 정당대회를 앞두고 더욱 가열되고 있으며, 대선의 화두로 떠올랐던 ‘새정치’와 혁신은 미완의 과제가 된지 오래다.

또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전남지역 농어촌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아시아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일궈내는 기적을 이뤄내지 않았던가.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고비마다 국난 극복에 앞장섰던 게 바로 호남이 아닌가.

협산준령(嶺山峽嶺)을 넘어 회갑의 해를 맞은 광주일보는 다시 웃음을 머미고, 신발 끈을 조여 땀 것이다. 지역의 올바른 여론 형성과 지역 역량을 결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기(公器)가 될 것이다.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들의 각성을 촉

구하고, 민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각오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앞당길 인물을 뽑는데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호남 발전을 가로막는 세력과는 과감히 맞설 것이다.

아울러, 호남 대표 정론지로서 ‘독자 중심’ ‘지역 중심’ ‘생활 중심’의 기사로 호남과 지역민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지난 61년의 성상(星霜) 동안 지역언론과 여론 형성을 선도해온 광주일보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함을 통감하고 있다. 제 역할도 못하면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지역신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민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요구하지는 않겠다.

정확한 사실 보도와 품격 높은 논평으로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하면서 광주일보의 명성을 잇고, 지역민과 고락을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호남의 대표 언론으로 명예를 지킬 것이다.

광주일보 임직원은 불철주야 호남인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는 61년 전의 초심(初心)을 되새기고, 오늘날의 시대정신을 직시하며, 호남 정통 언론으로서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길 것을 재삼 약속드린다. 애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배전의 충고와 사랑을 바라마지 않는다.

‘생명의 공간’ 순천만정원박람회 오늘 개막식

4월20일~10월20일(184일간)

자연과 인간의 소통 공간

세계인의 영혼에 여유와 휴식을 안겨주게 될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10월 20일까지)가 19일 개막식을 열고 6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들어간다.

이번 박람회는 ‘지구의 정원, 순천만(Garden of the Earth)’을 주제로 세계적 생태습지인 순천만과 풍덕동 일원 박람회장 등 111만2000㎡(33만6300여 평) 부지에서 열린다.

박람회장은 56만4000㎡의 주 박람회장과 23만3000㎡의 수목원, 10만5000㎡의 국제습지센터 등으로 꾸며진다.

또 순천정원박람회는 미래의 다양한 정원문화 기술을 전시 공유하는 장으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50년 전부터 개최해 온 박람회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린다.

무엇보다 네덜란드, 프랑스, 중국, 영국 등 세계 10개국이 참여한 세계정원과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찰스 쟁스가 설계한 순천만 호수-바람언덕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축구장 100개 크기의 박람회장에 국내 비롯해 프랑스와 영국 등 23개 나라, 정원 디자이너들이 84개의 명품정원을 수 놓았다.

영국헬시플라워스에서 두 번 금상을 수상한 황지해 정원디자이너는 환상의 정원도 관심을 끌고 있다. 박람회장 서쪽에 마련된 수목원에는 한국정원과 편백휴양숲 등이 조성돼 피톤치드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세계최초의 다리미술관인 꿈의 다리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이다. 습지센터와 박람회장을 연결하는



다리에 컨테이너 30개를 놓아 미술관으로 꾸며지며 상하이 엑스포 때 한국관을 디자인한 강이중 작가가 외부 디자인을 맡았으며 내부에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회화 작품 14만점이 전시된다.

박람회 기간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박람회장에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1일 35회, 총 6495회의 공연, 체험, 전시 등의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매주 주말 동천공원에서 열리는 상설주제공연을 비롯해 계절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테마 공연,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교통 대책도 마련됐다. 순천시는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연향호반이파트~제육

관 사거리 개설공사(1700m), 오산마을 진입로 개설 공사(391m), 남송동길 확·포장공사(528m) 등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총 1만3982대가 한꺼번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넉넉한 주차공간과 6860실의 숙박시설도 준비했다.

또 관광객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음식점과 306개소

를 지정, 맛있는 전라도 음식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박람회 폐막 후, 박람회장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정원 산업화’도 준비되고 있어 이번 박람회가 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제33회 장애인의 날을 축하합니다”

함께 일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호남권 취업지원 사업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장애인취업지원서비스**

취업이 잘 안 돼서 고민이십니까? 공단은 장애인의 취업 일자리를 찾고 계신 장애인들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장애인의 특성 및 희망을 고려한 단계별 맞춤 취업지원서비스로 (1단계) 진로설계, 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 (2단계) 지원고용, 시험고용, 직업훈련, 단기일자리, 창업, 청년인턴 등 프로그램지원, (3단계) 집중취업알선을 실시합니다.

워크투게다센터 운영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2, 3학년 및 전공과 재학 중인 학생이 졸업 전에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진로설계컨설팅, 취업준비프로그램, 취업연계프로그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등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보조공학기기 지원**

점성에 알맞은 곳에 취업했다는 막상 일하기가 불편해 고민인 분들 계신가요? 장애유형과 업무특성에 알맞은 기기를 지원해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도와드립니다.

- 대상 : 장애인근로자, 훈련생,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한 장애인사업주
- 내용 : 무상임대, 무상지원, 맞춤지원

■ **근로지원서비스 지원**

직장생활의 부수적인 업무에 도우미(근로지원원)를 지원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도와드립니다.

※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 및 문의는 가까운 지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사 워크투게다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73(차평동) 12층 T 062-448-1199 F 062-448-1144
전북지사 T 063-240-2400 전남지사 T 061-240-0700 제주지사 T 064-710-500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전안내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 산 한 약 방

한약 · 국산 · 수입한약재 한방에 대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약재 목록 도록 분양

이전약도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 산 한 약 방 광주결혼문화원

금로아파트, 이미트, 서방사거리 육교정류소, 419정류소, 상장입구, 상장동고, 호남직업전문학교, 홍릉리, 광주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553-14
062)223-3399 / 223-6664

신안 복합리조트 사업부지 매각 공고

I. 개 요

① 매각대상지사항(이하 “각 매각대상지사항”)
가)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일대 721필지 2,962,725㎡(이하 “안좌지역”)
나)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일대 190필지 1,460,655㎡(이하 “비금지역”)
다)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일대 58필지 537,801㎡(이하 “자은지역”)
라)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637-12 외 1,214필지 6,801,030㎡(이하 “가터지역”)
② 매각대상지사항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각 매각대상지사항 별 매각
③ 기타주요사항
- 매각대상지사항 리(가)터지역”는 다수의 자원으로 분할하여 매각할 예정이며, 매수희망자는 인수입찰시에 매수하고자 하는 필지를 기재하여 제출
- 매도자는 접수된 인수입찰내역 등을 고려하여 최종 입찰대상지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며, 확정된 최종입찰대상지사항은 인수입찰서 제출자에 추후 개별 공지할 예정
-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각 매각대상지사항 별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낙찰자는 각 매각대상지사항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및 신박사와 매매계약을 진행
- 입찰보증금은 현재까지, 입찰보증금 지급각새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재된 입찰보증금 납입을 확인할 입찰 시 제출 필요
- 각 매각대상지사항 별 세부 필지 내역은 예고보통공사 홈페이지 참조 가능하며, 필요 시 삼일회계법인에서 개별적으로 제공 예정
- 인수입찰서 제출자에 한하여 입찰참여 자격 여부를 결정할 예정

II. 매각 진행 절차

① 인수입찰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년 5월 2일 (목) 10시 ~ 2013년 5월 20일 (월) 16시 까지 (이하 대한민국표준시 무연계통의 경우 도착시간 기준)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제출 및 우편제출 중 선택 가능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91번지 LS윙스타워 5층 삼일회계법인 Deal 1본부 및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677-4 삼흥타워 5층 서남개발(주) 중 선택 가능
- 제출서류 : 비밀유지확인서, 인수입찰서 및 첨부서류
- 제출서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목으로 연락필요(안내문 제공 예정)
② 향후 진행 절차
- 인수입찰서 제출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일
③ 상가 일정 및 내용은 매도자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I. 소유권 이전

· 입찰일 기준으로서 각 매각대상지사항에 대한 재권한(가터분, 가터분, 소출, 임대차, 유치권, 제반권, 기타) 등은 매수자가 인지하고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입찰일로부터 매수기간 이후 추가접수 여부는 매도자의 판단에 따름

IV. 기 타

· 각 매각대상지사항 별로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여 유효 경쟁이 성립하는 경우 매각이 진행됨
· 농지에 대한 낙찰자는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납입기일 까지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소유권 취득 및 처분 관련된 사항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함
· 각 매각대상지사항의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수할 등의 상이에 대하여 매도자 및 삼일회계법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 책임자에 공부와 열람, 현저담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 각 매각대상지사항에 임대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권리, 의무관계 사항(관련법령 포함)은 입찰자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기타 이해관계인과 민형사사항을 포함한 상가 사항에 대해 매수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매도자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매각대상지사항 상의 존재하는 건축물과 관련한 권리, 의무관계 사항은 사전에 입찰자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이에 대해 매수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매도자 및 삼일회계법인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매각결과,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이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
· 매각결과 내용과 각 매각대상지사항의 공부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공부내용이 우선함
· 상가 일정 및 내용은 매도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매각대상지사항 리의 입찰대상지사항 확정, 인수자 선정을 임의로 철회할 권리 및 선정과 관련된 고유의 권한을 가진 모든 참가자는 그 결과에 대해 어떠한 내용의 손해배상 기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수입찰서를 제출한 정해진 인수자 가운데 본 거래와 관련하여 위험, 부담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자는 선정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된 인수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인수입찰서 접수기간 이후 추가접수 여부는 매도자의 판단에 따름
·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삼일회계법인 Tel : 02-3781-3441, 02-3781-9313, 02-3781-9122
E-mail : hyunsukkim@samil.com

2013년 4월 19일

매각주관사 삼일회계법인